

##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A. W. 토저 책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 주 동안 AW 토저의 책에서 은혜로운 부분을 컬럼으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고 믿지만, 동시에 장차 구원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기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공포심을 갖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압도되어 자신이 망했다고 느끼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그는 자신의 죄에서 깨끗케 되었음을 알지만 자신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괴로워한다.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가장 사랑한다. 자신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과 친구처럼 대화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모순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낀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치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확신하며, 자신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감사한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시민권에 부끄럽지 않은 충성심을 가지고 산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땅의 자신의 조국을 깊이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 낙스같은 신앙인은 “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였다.

그리스도인은 머지않아 저 밝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지만, 이 세상을 급히 떠나려고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조용히 기다린다. 그는 그의 이런 태도를 불신자가 왜 비난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때에 자신의 태도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 느낀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철저한 비관주의자이며 동시에 낙관주의자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는 비관주의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서 영광의 주님에게 쏟아진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 밖에 인간적인 소망을 찾으려는 시도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고결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비관주의자이며 동시에 평온한 낙관주의자이다. 십자가가 온 세상에 유죄 선고를 내린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우주에서의 선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모든 사람의 문제들이 전부 해결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이 궁극적 승리를 기다린다. 그렇다! 이토록 그리스도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전제다.....